금주의 법구–〈법구경〉
절제를 모르는 것은 죄악이다.
탐욕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0월 10일)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은닉 성보 환수 '청신호' 켜졌다

서울고법, 문화재 은닉 사건에 '몰수' 명령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법 유통된 불교 성보 문화재를 수십 년 동안 은닉해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유죄 선고와 함께 법원이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난당해 제자리에 갈 수 없었던 불교 성보들이 '환지본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10월 25일 선고 공판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한 은닉 불교문화재들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다.

지난 1993년부터 서울 종로에서 사립박물관을 운영한 A씨는 종로구 소재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서 불교문화재 39점을 은닉해왔다. 이들 범행에 꼬리가 잡힌 것은 지난 2016년 B씨가 은닉해오던 불교문화재 11점을 사찰 등에 처분하려다 발각되면서부터다. 당시 그들의 범행은 교계 언론과 일반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은닉 불교문화재 39점은 압류됐다.

이후 B씨의 문화재 알선 혐의는 A씨의 은닉 혐의와 함께 병합돼 형사재판이 진행됐으며, 2018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몰수 판결은 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은닉 행위 이전에 도난 문화재라는 것을 알고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 측은 항소했으며, A · B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계종 문화부 역시 재판부에 2차례에 걸쳐 "도난 성보가 원래 봉안처로 온전히 돌아가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 근절을 위해서라도 압수물 몰수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 중 주목할 것은 양형이 아니라 '몰수' 명령이다. 몰수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적지 않았다. 우선 39점의 불교 성보들은 사찰로 돌아가지 못한 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내 수장고에 임시 보관돼 있다. A씨는 2017년 3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물건 인도 등 청구 소송' 까지 제기한 상태다. 자신의 '은닉' 문화재를 되찾아 오겠다는 것이다.

실제, A씨의 은닉 문화재를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가 해당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 측이 증명해야 하지만 이를 밝히기란 쉬운 작업이 아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몰수' 명령은 이를 뒤집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유무죄 여부를 가릴 땐 검사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몰수 요건을 살필 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며 몰수 선고를 내렸다.

또한 "불교문화재의 유통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수십년간 사립박물관장을 역임한 문화재 전문가인 A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들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점도 문제가 됐다.

前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형량 같으나 '몰수' 선고
"문화재 전문가인 A씨가
불법 장물 모를 리 없어"
도난성보 판결 중요 선례

은닉 문화재에 대한 몰수 선고는 극히 드문 사례로 은닉 성보 환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담당했던 안상돈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불교 성보 유통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향후 도난 · 은닉 성보 관련 판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몰수 선고에 대해 피해 사찰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993년 주불 아미타불을 도난당한 전북 장수 팔성사 주지 법륜 스님은 "지난 25년간 부모 잃은 죄인으로 살았다. 이제 부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 기쁜 마음뿐"이라며 "이번 판결이 선례가 돼 잃어버린 성보들이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측은 10월 30일 항소했으며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도 '몰수' 판결이 이뤄지면 해당 문화재들은 우선 국가로 귀속된 후 원 주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사찰에 돌아가게 된다.



秋心佛心 제행무상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뿐 아니라 늘 우리들 삶 속에 있다. 푸른 나뭇잎이 어느덧 붉게 물들어간다. 10월 28일 충북 단양 청련사 법당 위로 가을이 물들고 법당에서는 스님의 독경소리가 들려온다. 마음속으로 가을이 물들고 불심이 물든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신도시 불사'에 내년 예산 집중

일반회계 295억 원 · 특별회계 759억 원 편성

신도시불사 특별회계 112% 증액
체험관 · 문화유산센터 건립 기대
대북교류 사업에도 종단 관심↑

불기2564(2020)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이 올해 대비 소폭 늘어난 1055억 원으로 편성됐다. 신도시시설건립특별회계가 112%나 증가해 세종과 위례 등 신도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불사가 성과를 보일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295억8341만원 △특별회계 759억3421만5000원이다. 올해보다 일반회계는 1.53%, 특별회계는 6.47%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도시시설건립 특별회계다. 국고가 포함된 금액이지만 올해 126억여 원이던 예산이 267억여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세종시 불교문화홍보체험관과 현재 부지 변경을 검토 중인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0.27법난기념관 건립부지는 봉은사 일원과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이 검토되면서 부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 185억 원이던 시설특별회계는 신도시 종교매입 대금 지출이 대부분 완료되면서 53억20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이외에 특별회계서는 '백만원력 특별회계' 가 신설돼 눈길을 끈다. 백만원력 특별회계는 제36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탄력 받기 시작하면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됐다. 내년에는 40억3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사업 주무부서인 백년대계본부도 기획실 산하에서 별도의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로 변경됐다.

일반회계서는 총무부가 종무원 인건비 상승과 2020년 정기분한신고 등으로 인해 11.13% 늘어난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포교원이 담당하던 군종특별교구 보조금 2억여 원이 총무부로 이관됐다. 기획실은 종단 홈페이지 개편과 공유서버 및 문서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바탕으로 2억2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무엇보다 올해 예비비로 집행한 국가법령 제 · 개정 관련 예산이 609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불교영상콘텐츠 제작과 방송활성화를 위해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내년도 화엄사 · 대흥사 · 백양사 · 직지사 등 4곳의 교구본사에 대한 전통사찰 부동산 공부 정리를 위해 1억2330만원의 사업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문화부는 신규사업인 불교문화대전(1억 원)을 비롯해 △북한성보문화재 DB구축(2700만원) △성보문화재 환수지원 이운식과 학술세미나 · 성보관련 체계정비(2567만원) △불교미술진흥(3530만원) △불교음악진흥(5000만원) 등의 예산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예고했다. 올해 대비 34.61% 늘어난 11억6777만원이다.

사회부 역시 △종교 · 종단 간 연대교류(6126만원) △사찰환경보존활동 · 국제세미나(2775만원) △남북불교교류 및 통일(5894만원) △국제교류(1439만원) 등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면서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남북불교교류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색국면인 남북관계에서 조계종이 주체로서 대북관계를 풀어갈 개별적인 사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늘렸다. 더불어 사업부는 경제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불교경제사업추진위원회' 예산을 소폭 늘리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발을 맞췄다.

윤승환 총무원 기획차장은 "관행적 예산에 대한 각 부처 구조조정과 성과미흡사업의 감액 예산 편성 등 업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각종 신규사업 지원을 비롯해 신도시 불사, 사찰규제법령 개선 등 불교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예산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이 같은 예산안은 11월 5일 개원하는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서 최종 심의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사용 장엄등 시공 • 임대
보련기획
장엄등을 대여해드립니다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 시공
행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출
보관 · 사후관리 불필요
BORYEON 보련기획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